

1. 생리현상 인정정도 :

(1) “결혼과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됨에 대한 생각”은 중학생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 T = 2.15, p < 0.05 )

(2) “자신이 여성임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남자형제 경쟁”에서는 고등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 T = -9.27, p < 0.001 )

2. 일반적 특성과 생리현상 인정과의 관계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비교 :

(1) 종교, 건강상태,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 직업의 유·무, 어머니 종교와 생리현상인정의 종합요인과는 유의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고등학생과 중학생간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도가 높았다. ( p < 0.001 )

(2) “결혼과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됨에 대한 생각과 일반적 특성 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기독교( T = 2.17, p < 0.05 ) 를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허약( T = 2.55, p < 0.05 ) 하고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상( T = 3.42, p < 0.001 ) 이며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있지 않는 경우( T = 2.47, p < 0.05 ) 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도가 높았다.”

## 충북지역 양호교사 미배치 국민학교의 학교보건간호 실태에 관한 조사

청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0집, 1984.

유재순

본 연구는 1983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충북지역의 10개 군에 있는 국민학교로서 전임 양호교사가 없는 171개교의 양호직책겸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국민학교 및 양호직책겸직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학교보건간호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양호교사가 없는 국민학교의 특성

① 학급수별 분포는 6학급 이하군이 45.0%, 7~9학급군이 39.8%, 13~17학급군 8.2%, 18학급 이상군 7.0%의 순이었다. 학동수별로는 200~399명군이 40.4%로 가장 많았고 교원수는 9명 이하인 학교가 49.1%로 가장 많았다.

② 독립된 양호실이 있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7.6% 뿐이었으며, 67.2%의 학교에서

간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88.9% 였다.

③ 각 학교에 가장 인접해 있는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지소 48.0%, 보건진료소 24.6%의 순이었고 인접한 보건의료시설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29.2% 였고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도 26.3% 나 되었다.

#### B. 겸직교사의 특성

① 양호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령은, 24세 이하군이 28.1%, 35세 이상군이 26.9% 였고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가 38.0% 였다. 이등중 여교사는 80.7% 였고 67.3%의 교사가 기혼자였으며 76.6%의 교사가 교육대나 사범대 출신이었다.

② 겸직교사가 학교보건간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교사 자신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학교측의 사정에 의해서 담당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90.1% 였다. 겸직교사의 겸직경력은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42.7% 였으며 겸직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겸직교사의 33.9% 뿐이었다.

#### C. 학교보건 활동 실태

① 각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보건간호 활동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업무 사항은 기생충 검사로서 99.4%의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97.1%의 학교에서, 장티푸스와 콜레라는 각각 56.1%, 45.6%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은 21.1%의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었다.

② 각 학교에서 지출한 연간 학동 1인당 보건위생비는 평균 328원이었으며 학급수, 학동수, 교원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보건위생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p < 0.01$ ,  $p < 0.05$ ). 또한 겸직 업무에 대한 겸직교사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건위생비가 지출되고 있었다( $p < 0.05$ ).

③ 학동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겸직교사가 겸직 업무를 실시한 평균 시간을 보면 하루에 30분 이내인 경우가 73.1% 였으며 이러한 시간은 근무교 교장이 전임 양호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수록 늘어나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p < 0.05$ ).

④ 겸직교사가 겸직업무를 실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으로 52.1% 였으며, 양호설비나 예산부족 35.7%, 시간부족 9.9% 였다.

⑤ 겸직교사가 교육받기를 가장 원하는 내용은 응급처치 54.4%, 양호교사의 전반적인 역할 21.6%, 아동의 질병관리 12.3%의 순이었다.

상기한 결과들으로써, 학교보건간호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양호교사의 충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제반 사정상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충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정이나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학동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겠기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교사에게 그 업무를 겸직시키기 전에 업무 실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필수적으로 마련해 주어야겠다.

둘째, 학교보건간호 활동에는 인적 자원 못지않게 물적인 자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겸직교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설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겠다.

셋째, 일반교사가 담임업무, 교무업무 등의 많은 분장 시무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교보건간호 업무를 과중하게 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겸직교사가 스스로 맡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마련되어야겠다. 즉 다른 잡무의 감소, 승진 점수 인정, 특별수당 지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학교보건간호사업은 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간호사업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의 여러 보건의료시설 및 활동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행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일지라도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일부 중·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2권 제1호, 1984.

조 유 향

결 론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학습을 위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종래의 교육방법은 교육자가 그의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피교육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는 교육자는 조력자로서의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피교육자들에게 바라는 건강행위를 하도록 학습경험을 조직하고 교재 제작활동을 토의할 질문을 만들게 되었다. 즉 어떤 교육자들은 그들자신 모든것을 다 말해줌으로써 잘 가르쳤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않으면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은것 처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교육자는 가르치고 있는것이 아니라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까지 보건교육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자 중심의 일방적 강의식은 학습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으므로 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활동의 교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재선택도 중요하게 되었다.